

# 현대소설의 제주설화 수용 양상 연구\*

—자칭비설화의 수용을 중심으로—

김동윤(제주대)

## 1. 머리말

소설의 핵심은 이야기인바, 설화는 이야기를 이루는 요긴한 원천이 된다. 그런데 설화가 소설에 수용된다는 것은 단순한 소재 차원을 넘어서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설화는 향유자들의 표현 욕구나 세계에 대한 반응을 진솔하게 형상화함으로써 전승집단의 가치관·세계관·공동체 의식 등을 잘 보여주기 때문이다. 아울러 소설에서 설화를 수용하는 것은, 설화라는 “원전을 재문맥화(recontextualize)하고 재구성하여 새롭게 변형”<sup>1)</sup>시킨다는 면에서, 일종의 패러디라고 할 수 있다. “설화를 소설로 패러디하는 것은 전통에 기반하여 작가의식을 표출하려는 것이므로, 전통의 생산적·창조적 계승이란 측면에서 바람직한 현상”<sup>2)</sup>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설화의 소설 수용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여러 모로 유용한 작업이라고 믿는다.

근래 들어 제주설화가 현대소설 속에 수용되는 경우도 많아졌다. 본풀이로 전승되는 제주의 각종 신화와 곳곳의 다양한 전설·민담들이 소설의 모티프, 삽화, 구조 등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sup>3)</sup> 여기서는 제주설화 중에서 비교적 전승범위가 넓고 인지도도 높은 자칭비설화와 관련하여 그것의 소설 수용 양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자칭비설화는 「세경본풀이」라는 제주도 서사무가에서 출발했다. 현용준<sup>4)</sup>에 의하면, 지금까지 학자들을 중심으로 조사·보고된 「세경본풀이」는 모두 7편이다. 일본인 아카마츠(赤松智城)와 아키바(秋葉隆)가 채록한 ‘박봉춘본’, 현용준이 채록한 ‘안사인본’, 진성기가 채록한 ‘이달춘본’과 ‘강을생본’, 장주근이 채록한 ‘고대중본’, 문무병이 채록한 ‘강순선본’, 제주전통문화연구소가 채록한 ‘고순안본’ 등이 그것이다.<sup>5)</sup> 그런데 「세경본풀이」는 그 내용이 매우 흥미로워서 굿판을 떠나서도 널리 구전되었다. 「즈청비와 문국성 도령」(『제주설화집성』), 「자칭비 이야기」(『백록어문』 2집), 「즈청비」(『백록어문』 10집), 「피꼬리와 호랑나비가 된 유래」(『한국구전설화』), 「자칭비」(『한국구전설화』), 「자칭비」(『남국의 전설』), 「자칭비」(『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제주도편』) 등에서 보듯이, 민담과 전설 형식으로도 많이 파생되어 전승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의 ‘자칭비설화’는 이러한 무가와 민담·민담을 모두 통틀어 개념이다.

현대소설에서 자칭비설화가 삽화(挿話)로서의 설화를 넘어서 한 편의 소설 전체 구조로서 수용되고 있는<sup>6)</sup> 작품들로는 한림화의 「자칭비」(『꽃 한송이 숨겨놓고』, 한길사, 1993), 이명

\* 이 논문은 2006년도 제주대학교 학술연구지원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1) 광근, 「처용설화의 현대소설적 변용 연구」, 『국어국문학』 125, 국어국문학회, 1999, 355~356쪽.

2) 위의 글, 356쪽.

3) 현대소설의 제주설화 수용과 관련된 논의로는 문성숙, 「제주설화의 현대문학적 변용」, 『제주문학』 22, 제주문인협회, 1992; 김영화, 「설화의 현대화」, 『변방인의 세계』, 제주대학교 출판부, 1998; 김동윤, 「현길언 소설의 제주설화 수용 양상과 그 의미」, 『제주문학론』, 제주대학교출판부, 2008 등이 있다.

4) 현용준, 『제주도 신화의 수수께끼』, 집문당, 2005, 114쪽.

5) 최근에 강정식·강소진·송경희가 채록한 ‘고복자본’(『동북 정병춘대 시왕맞이』,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8, 407~451쪽)과 제주대학교 대학원 한국학협동과정에서 채록한 ‘이용옥본’(『이용옥 심방 ‘본풀이』,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9, 237~292쪽)도 소개되었다.

6) 문성숙은 소설에 등장하는 설화들을 유형화하여, 하나의 설화가 한 편의 구조로서 참여하고 있는 경우를 ‘구조

인의 『집으로 가는 길』(문이당, 2000), 이석범의 「자청비」(『할로영산』, 황금알, 2005), 현길언의 『자청비, 자청비』(계수나무, 2005)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들 네 작품이 각기 어떤 방식으로 자청비설화를 수용하고 있는지 그 양상을 살펴보고, 각각의 작가가 새롭게 창조하고자 했던 주제의식을 구명해 봄으로써 자청비설화 수용에서의 문제와 과제를 짚어보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먼저 자청비설화에 대해 살피고서 소설 텍스트들을 분석하는데, 논의의 편의상 변용이 적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는 작품부터 다루어 나가기로 한다.

## 2. 자청비설화의 내용과 의미

현용준은 지금까지 조사·보고된 세경본풀이들이 각기 표현기법의 섬세함에서 차이가 있을 뿐, 그 서사 전개는 거의 같다면, 자신이 채록한 안사인본을 중심으로 이본들의 내용을 첨가하여 그 요지를 정리한 바 있다.<sup>7)</sup> 여기에 그것을 좀더 요약하여 제시함으로써 구조와 내용을 확인키로 하자.

- ① 짐진국(김진국, 임정국) 대감과 즈지국(자지국, 조진국) 부인이 부부가 되어 천하거부로 살았는데, 늦게까지 자식이 없어 근심이 컸다.
- ② 하루는 동개남절의 중이 백근 시주를 차려 백일 불공하면 자식 낳겠다고 했다.
- ③ 절에 간 부부는 그날부터 불공을 드리기 시작했다.
- ④ 절에서는 시주가 99근밖에 안 되므로 여자아이를 낳을 것이라 예언했다.
- ⑤ 부부가 감주에 호박안주 먹는 태몽을 꾸고 천하일색 딸을 낳아 ‘자청비’로 이름 지었다.
- ⑥ 열다섯 된 자청비는 빨래 덕에 여중 손발이 고음을 알고 주천강 연못에 빨래하러 갔다.
- ⑦ 거무선생에게 글공부 가던 하늘나라 문선왕의 아들 문도령이 자청비의 미모를 발견하고 물을 달라 하자, 자청비는 물 한 바가지에 버들잎을 띄워 건넜다.
- ⑧ 문도령이 나무라니 자청비가 물에 체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여 감복시켰다. 자청비는 남동생과 글공부를 같이 가라며 문도령을 기다리게 했다.
- ⑨ 부모에게 허락받은 자청비는 남장하고 남동생인 척하여 문도령과 함께 길 떠났다.
- ⑩ 둘은 서당에서 공부하는 3년간 한술밥 먹고 한 이불에 잤다. 자청비는 둘 사이에 물 떠놓고 가고, 씨름과 오줌 멀리 갈기 시험 등에서 이김으로써 남자임을 믿게 했다.
- ⑪ 서수왕 따님에게 장가들라는 문선왕의 편지를 받은 문도령은 서당을 떠나게 됐다.
- ⑫ 자청비도 문도령과 함께 서당을 나오다 목욕하게 됐다. 위쪽에서 목욕하던 자청비는 버들잎에 글을 써 아래쪽의 문도령에게 띄워 보내 여자임을 밝혔다.
- ⑬ 귀가한 자청비는 부모에게 문도령의 나이를 속여 자기 방에서 동침했다.
- ⑭ 문도령은 복숭아씨를 주며 그걸 심어 꽃필 때까지 온다 약속하고 빗 반쪽을 남기고 떠났다.
- ⑮ 복사꽃 피어도 문도령 소식이 없자 자청비가 종 정수남이에게 투정한다. 정수남이는 굴미굴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소와 말 아홉 마리씩을 굶겨 죽이고 그 고기까지 먹어버렸다.
- ⑯ 내려오던 정수남이는 오리를 잡으려고 도끼를 던졌으나, 도끼만 물에 빠져 옷 벗고 들어가 찾았으나 허사였고, 그 와중에 옷을 도둑맞자 나뭇잎으로 사타구니를 가리고 귀가해 장독대에 숨었다.
- ⑰ 자청비에게 들킨 정수남이는 문도령이 선녀들과 노는 것을 구경하다 그리 되었다고 속였다.
- ⑱ 정수남이는 문도령 만나러 간다며 자청비를 속여 꿀탕 먹이고 자청비를 겁탈하려 하므로 그제야 속았음을 안 자청비가 지략으로 정수남이를 죽이고 내려왔다.
- ⑲ 자청비 부모는 종을 죽였으니 종의 일을 해보라며 좁쌀을 뿌려 다시 거둬오라 했다. 마지막 좁쌀 한 알을 개미가 물고 가는 걸 보고 빼앗아 뱉으니 개미허리가 훌쩍하게 됐다.

로서의 설화, 설화의 화소가 소설 속에 다양하게 삽화로 등장하면서 소설의 부분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경우를 ‘삽화로서의 설화’로 명명한 바 있다. 문성숙, 앞의 글, 1992, 130~131쪽.

7) 현용준, 앞의 책, 114~119쪽.

- ⑳ 쫓겨난 자청비는 남장으로 다니다 서천꽃밭을 해치는 부영이를 잡은 공으로 꽃감관 막내딸과 결혼했다. 과거 보러 가는 중이라 몸 정성을 한다고 하여 동침을 피한다.
- ㉑ 자청비는 서천꽃밭의 환생꽃 등을 따다가 정수남이를 살려내어 부모에게 바쳤다.
- ㉒ 부모는 “사람을 죽였다 살렸다 하는 딸을 용서할 수 없다”고 하여 다시 쫓아냈다.
- ㉓ 배회하다가 주모할머니 집에 유숙하게 된 자청비는 비단을 잘 짜서 수양딸이 됐다.
- ㉔ 주모할머니가 짜는 비단이 문도령이 서수왕 따님에게 장가들 때 쓸 혼수임을 안 자청비는 비단에 이름을 새겨 자신의 소재를 알렸다.
- ㉕ 문도령이 자청비를 만나러 왔으나 자청비의 장난으로 상봉에 실패한다.
- ㉖ 자청비가 그리운 문도령은 그녀와 목욕하던 물을 떠오라고 궁녀들에게 명한다. 그 물을 못 찾아 우는 궁녀들을 만난 자청비가 물을 길어주고 함께 승천했다.
- ㉗ 문도령 찾아간 자청비는 열레빗을 맞춰 본인임을 확인하고 문도령 방에서 만단정화를 나눴다.
- ㉘ 그들은 낮에는 병풍 뒤에 숨어 살고 밤에는 한 이불 속에 자면서 지냈다.
- ㉙ 하녀가 눈치 채자 자청비는 문도령에게 부모와 수수께끼 내기를 하여 사실을 알리게 했다.
- ㉚ 문도령 부모는 숯불 위의 칼날을 텐발로 넘는 이를 떠느라 삼켰다고 했다. 실패한 서수왕 따님은 방에 갇혀 죽어 새가 되고, 자청비는 하늘에 축수해 비 내리게 함으로써 칼날 위를 걸어 합격했다. 그런데 마지막에 발뒤꿈치를 베어 피가 나자 속치마로 훔쳤는데 그것이 월경의 시초다.
- ㉛ 문도령과 자청비는 정식 결혼에 성공하여 행복하게 지내게 되었다.
- ㉜ 자청비는 서천꽃밭 막내딸과 혼인한 사실이 걱정되어 문도령에게 거기 가서 보름을 살고 나머지 보름은 자기와 살도록 했는데, 문도령은 한 달 넘도록 돌아오지 않았다.
- ㉝ 자청비가 편지를 보내자 문도령은 급히 행진을 돌려쓰고 두루마기를 한쪽만 걸치고 말을 거꾸로 탄 채 돌아왔고, 자청비도 머리를 풀어 손질하던 차여서 지푸라기로 묶어 마중 나섰다.
- ㉞ 자청비와 문도령을 시기한 하늘나라 청년들이 문도령에게 독약 탄 술을 먹여 죽였다.
- ㉟ 자청비는 서천꽃밭에서 환생꽃을 따다가 문도령을 살려냈다.
- ㊱ 하늘나라에 난리가 나자 평정하는 자에게 땅과 물 한 조각씩 나눠준다는 방이 붙었다.
- ㊲ 자청비는 서천꽃밭에서 멸망꽃을 따다가 동서로 뿌려 이를 평정했다.
- ㊳ 자청비는 땅과 물 대신 오곡씨를 요청하여 문도령과 함께 7월 14일 인간세상으로 내려왔는데, 이날이 백중제일이 됐다.
- ㊴ 정수남이가 배고파 죽겠다고 하므로, 자청비는 소 아홉 마리를 놓고 밥을 가는 부자 밭에 가서 점심을 달라고 했다. 밭주인이 밥을 안 주자 흉년 들게 했다.
- ㊵ 호미로만 농사짓는 노인 부부가 정성껏 밥을 주니 씨를 잘 골라줘 부자 되게 했다.
- ㊶ 하늘에서 메밀씨를 얻어와 파종이 늦은 밭에 갈아도 같이 수확해 먹도록 해줬다.
- ㊷ 문도령은 상세경, 자청비는 중세경, 정수남이는 하세경이 됐다.

이렇게 볼 때, 자청비설화는 기본적으로 자청비를 비롯하여 문도령과 정수남이가 농경(세경)신으로 좌정하기까지의 내력을 담은 이야기다. 물론 그 중심인물은 자청비다. 이 설화의 구조는 (1)자청비의 출생(①~⑤), (2)문도령과의 조우와 사랑(⑥~⑬), (3)이별과 시련(⑭~⑳), (4)재회와 시련의 극복(㉑~㉝), (5)농신으로 좌정(㉞~㉟) 등 다섯 부분으로 정리할 수 있다. (5)단계를 제외하면 한국 고소설의 영웅의 일생 구조와 동일하다.<sup>8)</sup>

자청비설화를 한반도 지역의 무속신화들과 대비해 보면 몇 가지 공통점과 특이성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이 설화의 영웅의 일생 구조는 한국의 무속신화들에서 거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구조다. 또한 삽화면에서 천신(天神, 문도령)과 지신(地神, 자청비)의 결합이 나타나고 이 결합에서 지신계(地神系)가 수난을 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든가, 천상계(문도령)·인간계(자청비)·자하계(정수남)의 3분된 세계관도 다른 지방의 무속신화와 매

8) 김영화, 앞의 글, 49~50쪽 참조.

우 유사하다. 그러나 여주인공의 인격에서 다른 지방 어떤 신화의 여주인공들에게서도 볼 수 없는 정도의 용감성과 적극성이 나타나고, 신직(神職)에 있어서 한국 신화에서는 거의 유일한 영농신이며, 신의 성격에서 1년 주기로 새로 태어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서 특이한 면모가 있으며, 놀이(세경놀이)를 수반하고 있고 하나의 신화 속에 여러 신들의 신화가 복합되어 있는 점 등에서 차별성이 있다.<sup>9)</sup>

위에서 말하는 자칭비설화의 여러 특징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것은 여주인공의 행적과 그 의미다. 진취적이고 강인한 여성으로서의 자칭비가 가장 의미 있는 맥락이다. 자칭비는 가부장제 사회구조에서 불완전한 존재로 취급되는 여성으로 태어났으나, 주위의 시선을 무시하고 적극적으로 자신을 표출하였다. 관습적으로 볼 때에는 남성처럼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녀의 이런 행동은 결국 가부장제 사회구조 안에서 적극적인 여성이 취할 수 있는 행위를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녀는 남성과의 만남과 이별, 그리고 결연을 통해 부분적이고 불완전한 존재에서 좀더 완전하고 총체적이며 독립적인 영웅적 인간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 남성성·여성성의 구분을 뛰어넘은 존재인 것이다.<sup>10)</sup>

그래서 자칭비는 “여성 중의 여성”<sup>11)</sup>으로서 제주여성들의 표상으로 인식된다. “문화적 여성 영웅”으로서 “전통과 현재 혹은 미래를 잇는 가교 역할을 담당”하는 “自由의 여신, 生産의 여신, 豊饒의 여신, 祈願의 여신”이라는 평가<sup>12)</sup>가 내려지기도 한다. 이런 것들이 자칭비설화가 문학작품에 자주 수용되는 주된 이유로 작용함은 물론이다.

### 3. 텍스트의 반복 혹은 대중화—이석범의 「자칭비」

이석범의 「자칭비」는 ‘소설로 읽는 제주도신화’라는 부제가 달린 『할로영산』에 수록되어 있다. 작가는 제주도신화를 “이야기답게 만들어내”기 위해 “채록된 이야기들을 일정 부분 삭제하고, 첨가하고, 이어 붙여 각편의 변별성과 함께 전체적인 연계성을 강화하는 데 주력”<sup>13)</sup>했다고 밝혔는데, 『할로영산』에는 「자칭비」를 비롯하여 소설로 쓴 제주도신화가 모두 10편 실려 있다. 작품에서 설정된 장별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천지왕은 하늘을 삼분하여 동수왕·서수왕·문성왕에게 다스리게 했다.

②문성왕은 바람둥이 아들 문도령을 공부시키기로 하고 지상의 스승에게 글을 배우라고 명했다. 문도령은 땅에도 아름다운 여인들이 있겠거니 하는 기대를 가졌다.

③자정국 대감의 딸로 태어나 15세 된 자칭비는 계집종 손이 고운 게 주천강 연못에서 빨래한 탕 입을 알고 빨래하러 갔다. 거무선생 서당으로 가던 문도령이 자칭비를 보고 물을 청하니, 자칭비는 버들잎 띄운 물바가지를 건넸다. 자칭비는 남장하여 문도령을 따라나섰다.

④서당에서 문도령과 함께 지내게 된 자칭비는 둘 사이에 물 떠놓고 자며 여자임을 숨겼다. 문도령과 거무선생이 여자로 의심해 확인하려 들자 가슴을 탄탄히 하고, 대나무와 솔방울을 사타구니에 매달아 달리고, 대막대기를 하문에 꽂아 오줌을 갈겨 위기를 넘겼다.

⑤3년 후 문도령은 서수왕 딸과 결혼하라는 문성왕의 편지를 받았다. 문도령을 따라 서당을 그만

9) 박경신, 「제주도 무속신화의 몇 가지 특징—「세경본풀이」를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96, 국어국문학회, 1986, 283~303쪽.

10) 한창훈, 「제주도 무가에 형상화된 여성(신)의 성격」, 『시가와 시가교육의 탐구』, 월인, 2000, 320~326쪽.

11) 송경순(안덕면 사계리) 큰심방의 증인. 좌혜경, 「자칭비, 문화적 여성영웅에 대한 이미지—여성상과 성격을 중심으로」, 『한국·제주·오키나와 민요와 민속론』, 푸른사상, 2000, 351쪽에서 재인용.

12) 위의 글, 351쪽.

13) 이석범, 「작가의 말」, 『할로영산』, 황금알, 2005.

둔 자청비는 목욕하고 가자고 하여, 위쪽 물통에서 여자임을 밝히는 글을 버들잎에 새겨 보냈다. 자청비는 집에 따라온 문도령을 15세 미만의 여자라고 부모를 속여 합방했다.

⑥합환하고 날이 밝자 이별하는데, 문도령은 복숭아씨를 주며 꽃 피면 돌아온다고 약속하고 하늘로 갔다. 복숭아꽃이 피어도 문도령은 돌아오지 않았다.

⑦자청비의 심술에 정수남이는 굴미굴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소·말 아홉 마리씩을 굶겨죽여 구워 먹었다. 가족만 지고 오다가 오리 잡으려고 도끼를 던졌으나 도끼만 물에 빠져 옷 벗고 들어갔지만 못 찾았다. 옷과 가족도 없어서 나뭇잎으로 아랫도리를 가리고 귀가해 장독대에 숨었다가 자청비에게 들키자 문도령이 선녀들과 노는 걸 보다가 그리 됐다 속였다.

⑧이튿날 문도령 만나러 간다며 자청비와 함께 길을 나선 정수남은 속임수를 써서 자청비의 밥을 빼앗아먹고 대신 짐 지어 걸어오게 하는 등 꿀탕 먹었다.

⑨옷을 벗기는 등의 희롱에 자청비는 뒤늦게 속았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움막을 짓게 하여 시간을 지연시킨 후 무릎에 눕혀 머릿니를 잡아주다가 귀에 덩굴을 찢러 죽였다.

⑩말 타고 가던 자청비는 신선의 도움으로 말꼬리에 달린 정수남이의 그림자를 퇴치했다. 자청비 부모는 머슴을 죽였으니 머슴 일을 해보라며 좁쌀을 뿌려 모두 주워오라 했다. 마지막 좁쌀 한 알을 개미가 물고 가는 걸 보고 허리를 후리치니 개미허리가 잘록해졌다.

⑪남장하여 집 나온 자청비는 정수남이를 살릴 도환생꽃을 얻으러 서천꽃밭을 찾아갔다. 꽃감관 할락공이는 꽃밭 망치는 부엉새를 잡아주면 사위 삼겠다 했다.

⑫알몸으로 누워 부엉새가 된 정수남이 혼령을 부른 자청비는 화살로 귀를 찢러 죽였다.

⑬할락공이 딸과 결혼한 자청비는 과거보러 가던 길이라 동침 못한다고 둘러대고는 각종 꽃을 구해놓았다. 도환생꽃 등을 뿌려 정수남이를 살려내어 부모한테 갔으나 해괴한 짓을 한다며 내쫓겼다.

⑭청태국할머니 수양딸이 된 자청비는 양어머니가 짜는 문도령의 혼수용 비단에 이름을 새겨 넣었다. 만나러 왔던 문도령이 장난에 화나서 가버리자 양어머니에게 내쫓긴 자청비는 비구니가 됐다.

⑮문도령이 자신과 목욕했던 물을 찾아다닌다는 궁녀들을 만난 자청비는 물을 길어 함께 승천해 달밤에 문도령과 재회했다. 병풍 뒤에 숨어 살다가 신녀들이 눈치 채자, 문도령은 자청비의 귀땀대로 자청비와 결혼하겠다고 부모에게 말했다.

⑯문성왕은 숯불 위의 작듯날을 댄발로 걸어 넘으면 머느리 삼겠다고 했다. 자청비는 천지왕에게 빌어 비 내리게 해 건넜는데, 마지막에 뒤꿈치가 베여 나는 피를 속치마로 닦았다.

⑰파혼 통보를 받은 서수왕 딸은 방문을 잠근 채 드러누웠다. 백일 후 방문 부수고 들어가니 두 통새·홀근새·악습새·해말림새 등의 새로 환생하는 중이었다.

⑱문도령과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던 자청비는 서천꽃밭 막내딸이 걱정돼 문도령에게 보름씩 오가며 살게 했다. 문도령이 두 달 넘도록 돌아오지 않자 자청비가 편지를 보냈다. 문도령은 옷도 제대로 못 걸친 채 말을 거꾸로 타서 돌아왔는데, 막내딸은 각종 꽃을 선물했다.

⑲서수왕 딸의 오라비들은 독약 탄 술을 먹여 문도령을 죽이고 자청비를 푸대삼하러 찾아갔다. 자청비는 피를 내어 그들을 물리친 후, 환생꽃으로 문도령을 살려냈다.

⑳세 하늘 간의 세력 다툼이 일어나니, 천지왕은 난을 평정하는 자에게 땅 한 조각, 물 한 적을 갈라주겠다고 했다. 자청비는 서천꽃밭 수레멜망악십꽃으로 난리를 수습했다.

㉑자청비가 땅과 물 대신 오곡 씨앗을 청하니, 천지왕은 농사신이 되게 했다. 자청비는 7월 보름날 문도령과 함께 인간세상에 내려왔는데, 천지왕은 이날 백중제를 지내게 했다.

㉒배고프다는 정수남이를 만난 자청비는 부자에게 점심을 청했는데 거절당하자 흉년들게 하더니, 가난한 노인 부부가 밥을 주니 풍년들게 했다. 자청비·문도령은 농신, 정수남이는 목축신이 됐다.

위의 개요에서 보듯이, 이 작품의 구조는 원텍스트인 설화와 똑같다. 그 내용이나 모티프 등에서도 설화와 다른 점을 찾기 힘들다. 작가가 설화 각편들을 검토하여 연계성이나 짜임새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쓴 것이기 때문이다. 앞에서 언급했듯 대부분의 현대소설에서의 설화 수용은 패러디의 형식으로 나타나지만, 이 소설은 그렇게 보기 어렵다. 원텍스트를 단순

히 반복·정리하는 데 그쳤을 뿐, 설화라는 원텍스트에 대해 차이를 통해 비평적 거리를 드러내지 못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충성의 서사시 「자청비」(1980)가 “자청비설화를 다시 한번 되풀이한 데 그친”<sup>14)</sup> 것과 마찬가지로의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작품 서술에서도 설화와와 차별성이 거의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많다. 현용준이 정리한 「자청비」(㉠)와 이석범의 소설 「자청비」(㉡)의 한 부분을 비교해 보면 그것이 확인된다.

㉠문도령은 먼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처음 뵈웁니다.”/자청비의 남동생인 체하여 자청비가 먼저 인사를 했다./“예, 나는 하늘 옥황 문성왕 문도령이 됩니다.”/“예, 나는 주년국 땅 자청 도례(道令)이온데, 누님한테 말씀 잘 들었습니다.”/남매가 얼굴이 비슷할 거야 당연한 일이겠지만, 이렇게도 닮을 수가 있는가고 문도령은 생각했다./돌이는 어깨를 나란히 하여 거무 선생에게로 갔다./그날부터 돌이는 한술의 밥을 먹고 한이불 속에서 잠을 자고, 서당에 같이 앉아 글을 읽기 시작했다.<sup>15)</sup>

㉡문도령은 문 밖 멀리서 기다리고 있었다./“처음 뵈웁니다.”/자청비의 남동생인 체하여 자청비가 먼저 인사를 했다./“나는 자청 도례(道令)이온데, 누님한테 말씀 잘 들었습니다.”/“반갑소. 나는 중하늘 문성왕의 아들 문도령이요.”/인사를 하면서도 문도령은 기이하게 생각했다./남매가 얼굴이 비슷할 거야 당연한 일이겠지만, 이렇게도 닮을 수 있는가?/돌이는 나란히 말을 타고 거무 선생 서당으로 갔다./그날부터 문도령과 자청 도례는 돌이서 한술의 밥을 먹고 한이불 속에 잠을 자고 서당에 함께 앉아 글을 읽기 시작했다.(109~110쪽)<sup>16)</sup>

설화 ㉠과 소설 ㉡은 거의 그대로 옮겨졌다고 할 정도로 아주 대동소이하다. 이석범의 「자청비」가 설화를 개변·첨삭·정리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 작품에서 개성적인 면모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문도령이 바람둥이로 설정되었다는 것이 이 작품의 특징적인 부분으로 꼽을 수 있다. 두 번째 장의 제목은 아예 ‘바람둥이 문도령’으로 명시되어 있다.

(...) 문도령은 워낙 잘생긴데다 신녀(神女)들한테 관심이 많아 하늘궁전의 바람둥이로 소문이 나 있었다. 오늘은 동수왕 누이를 따라다니는가 하면 다음날은 서수왕 이모를 집적거리는 등 문도령을 싸고도는 술한 염문 때문에 문성왕이 골치를 앓았다./문성왕은 근심 끝에 아들한테 일단 공부를 시키기로 마음먹었다.(...)/“더 늦기 전에 땅으로 내려가 훌륭한 스승한테 글을 배우도록 하라.”/문도령은 귀가 번쩍 뜨였다./“땅에도 물론 아름다운 여자들이 있지 않겠는가!”/아버지 문성왕의 기대와는 달리 문도령은 이젠 땅의 여인들한테 관심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다.(106쪽)

이 작품의 문도령은 술한 염문을 뿌리고 다니는 바람둥이여서 아버지 문성왕의 골칫거리다. 공부를 통해 그것을 바로잡으려는 문성왕의 의도와는 반대로 문도령은 또다른 여자들을 만나려고 지상에 내려왔다. 그런 마당에 빼어난 미모의 자청비를 만났으니 문도령이 그냥 지나칠 리 만무하다. 작가는 “문도령이 누구인가. 미인을 발견한 터에 도저히 그대로 발길을 돌릴 수 없었다.”(107쪽)고 서술하고 있다. 뒷부분에서도 서천꽃밭 막내딸과 보름씩 오가며 살라는 자청비의 제의를 받고서 “바람둥이 문도령으로서야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143쪽)고 한다면, 서천꽃밭 막내딸과 달콤한 삶을 사는 부분에서는 “아리따고 순종적인 데다 야들

14) 김영화, 앞의 글, 51쪽.

15) 현용준, 「자청비」, 『제주도신화』, 서문당, 1977, 155쪽.

16) 작품을 직접 인용할 경우에는 인용문의 말미 텍스트의 쪽수만 ( )에 넣어 표시키로 한다.

아들 부드러운 몸이 자청비와 또 맛이 달랐”기에 “바람둥이 문도령은 자청비를 잊어버렸다.”(144쪽)는 식으로 ‘바람둥이 문도령’을 도처에서 강조한다.

아마도 작가는 독자들에게 흥미를 돋우기 위한 방편으로 문도령이 바람둥이임을 강조한 것이 아닌가 한다. 물론 문도령이 서천꽃밭 막내딸의 남편 구실까지 해야 하는 특수한 상황을 받아들이는 인물이니, 그 리얼리티를 강조하기 위한 장치로도 볼 수 있다.

이렇듯 이석범의 「자청비」가 보여주는 소설적 의미는 그만큼 약화될 수밖에 없다. 다만, “제주신화의 대중화를 더 높은 수준으로 옮겨 놓았다.”<sup>17)</sup>는 평가는 가능하다고 본다. 다시쓰기를 통해 제주설화를 대중화하는 것이 매우 의미 있는 작업임은 틀림없다. 하지만 좀더 탄탄한 짜임새에다가 디테일의 측면에서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만 제주설화의 대중성과 더불어 소설로서의 의미를 분명히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4. 기독교적 ‘평화의 신’으로 변용—현길언의 『자청비, 자청비』

현길언의 『자청비, 자청비』는 소년소설로 씌어졌다. 이전에 작가는 어린이도서인 『제주도 이야기』(창작과비평사, 1984)에서 「농사를 맡은 신 자청비」를 소개한 적이 있지만, 『자청비, 자청비』는 작가의 의도에 따라 꽤 변용된 양상으로 다시 씌어진 작품이다. 작품에서 구분된 12개의 장에 따라 개요를 작성하면 다음과 같다.

①1000일 기도로 태어난 자청비는 남자처럼 키워졌다. 샘에서 물 길으며 여자임에 속상해하던 자청비는 물을 청하는 사내에게 버들잎을 띄운 물을 주었다. 사내가 하늘나라의 천세동이고 도원마을에 글공부 하러 가는 길임을 알자 제 동생도 함께 가게 해달라고 했다.

②급히 남장해 부모 허락을 받은 자청비는 천세동에게 남동생이라 속여 함께 떠났다.

③그들은 도원선생을 찾아가 한 방에서 거처하며 공부했다. 처음엔 여자임을 감추려고 둘 사이에 물그릇을 놓고 자던 자청비는 점점 천세동에게 마음을 뺏겨 공부가 잘 안 됐다.

④1년이 지나도 천세동은 자청비가 여자임을 몰랐다. 자청비는 자신이 여자임을 알려려고 팔씨름, 씨름, 오줌 멀리 내갈기 등의 시험을 하지만, 천세동은 눈치 채지 못했다.

⑤3년이 지나 도원선생이 역적으로 몰려 잡혀가자, 귀항하게 됐다. 둘이 샘에서 목욕하면서 자청비는 버들잎에 글을 써서 여자임을 밝히고 귀가했다. 쫓아간 천세동은 집밖에서 밤새워 기다려 자청비를 만나 빗 반쪽과 함께 박씨를 주면서 그걸 심어 박이 열리면 돌아와 결혼하겠다고 떠났다.

⑥1년 지나도 천세동의 소식이 없자 자청비는 하늘나라를 찾아나선다. 한 마을에서 부영이 한 마리를 놓고 다투는 아이들의 싸움을 해결해주고 서천꽃밭으로 향했다.

⑦자청비가 화살로 서천꽃밭의 꽃을 망치는 부영이를 다 내쫓자, 왕은 막내사위로 삼았다. 자청비는 공주에게 과거에 급제할 동안은 잡자리를 같이 하지 말자고 하여 여자임을 숨겼다. 여섯 달 후 과거보러 떠난다고 하니, 공주는 생명꽃을 내주었다.

⑧하늘나라 가던 중 길 잃어 동남질하던 자청비는 노파의 양녀가 되어 비단 짜는 것을 배웠다.

⑨천세동 혼사에 쓸 비단에 자청비가 천세동에게 전하는 글을 써 보냈다. 소식을 알고 천세동이 보낸 선녀들에게 양어머니는 시집갔다고 거짓말했다. 이후 천세동이 내려오자 양어머니는 자청비로 위장해 바늘로 천세동 손을 찔렀다. 천세동이 실망해서 떠난 사실을 안 자청비는 그 집을 나왔다.

⑩떠돌던 자청비는 천세동의 목숨이 위급하다는 말을 선녀들에게 듣고는 샘물을 길어 하늘나라로 함께 갔다. 둘은 재회했지만 왕이 혼인을 불허하자 천세동은 병이 깊어져 죽었다. 자청비가 서천꽃밭의 꽃으로 천세동을 살려내 결혼하니, 하늘과 땅의 구별이 없어지게 됐다.

⑪자청비는 과수원에서 일하면서 천세동과 함께 하늘나라를 구경하고 하늘나라 말을 배웠다. 계급도 지위도 없이 모두 열심히 일하며 즐겁게 사는 하늘나라에서 자청비는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

17) 김진하, 「신화로 다시 태어난 제주 서사무가—이석범 소설집 『할로영산』 서평」, 『제주작가』 제15호, 2005, 256쪽.

⑫ 자청비는 결혼 1년 후부터 부모와 도원선생 꿈을 꾸게 되자, 세상으로 내려가 평화로운 하늘나라에 대해 전하고 세상을 하늘나라처럼 만들면 돌아오겠다고 했다. 결국 천세동과 헤어져 귀가했으나, 집안에서는 바깥출입을 못하게 뒷방에 숨겼다. 자청비는 몰래 집 나온 후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하늘나라의 일을 들려주지만, 사람들은 미친 여자로 취급했다.

이상에서 보면 『자청비, 자청비』의 전체적인 구조는 원텍스트인 설화와 거의 다를 바 없다. 그런데도 작품의 주제의식 면에서 판이하고, 일부 삽화들도 주제에 맞게 의도적으로 변형되었다.

자청비 이야기가 매우 아름답고 귀하다고 생각되어, 여러 어린이들에게 전하려고 새로운 작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가 소중한 것은 뜻을 이루려고 온갖 고생과 위험을 이겨내며 살아온 그 용기와 끈기 때문이고, 행복한 하늘나라를 버리고 사람들을 위해서 땅으로 내려온 그 마음 때문입니다. (...) /농사를 관장하는 신이었던 자청비를 이 작품에서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땅으로 내려온 인물로 바꾼 이유는, 인류가 소망하는 가장 귀한 가치가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농사를 짓기 시작한 것은 우리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만,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땅에 평화를 심는 일입니다. 그래서 자청비는 하늘나라를 버리고 땅으로 내려왔습니다.<sup>18)</sup>

위와 같은 작가의 목소리를 통해서도 나타나듯이, 이 작품에서 자청비는 농사를 관장하는 신이 아니라 ‘평화의 신’이다. 현길언은 이 작품에서 ‘평화’라는 가치를 내세워 자청비설화를 자신의 의도에 맞게 비틀어 썼는데, 그 의도란 다분히 종교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서 설화의 문도령은 ‘천세동’으로 등장하는바, 이는 ‘天世童’ 즉 ‘하늘의 아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리고 이 소설의 자청비는 하늘의 뜻인 평화의 사상을 전파하는 신이 되므로, 말하자면 자청비는 예수의 분신이라고 할 만하다. 따라서 여기서의 평화는 일반적인 의미가 아니라 기독교적인 의미가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자청비는 이 곳(하늘나라: 인용자 주) 사람들이 들짐승이나 공중의 새처럼 아주 자유롭게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 사람들은 말소리를 크게 내지 않았다. 그래도 그 말소리는 마치 새소리를 듣는 것처럼 곱고 푹푹하게 들렸다. 큰 소리를 지르는 사람도 없었다. 사람 우는 소리나 고향 소리도 들을 수 없었다. 얼굴을 붉히면서 불평을 늘어놓거나 다투는 사람도 없었다. 이상한 것은 왕자인 천세동과 같이 다녀도 허리를 굽혀 인사하는 신하가 없다는 것이었다. 모두들 서로를 친구처럼 대했다.(172~173쪽)

이 소설에 형상화된 하늘나라, 즉 천국(天國)의 모습이다. 자청비는 “하늘나라에서는 모두가 만족하고, 모두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모두가 행복한데 땅은 그렇지 못”하기에 “땅으로 내려가서 하늘나라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을 전”(182쪽)하겠다고 결심을 한다. 진정한 평화는 오로지 하늘에만 있다는 기독교적인 메시지로 해석되는 것이다.

며칠 동안 궁리한 끝에, 자청비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세상 사람들에게 하늘나라 사정을 전하겠다고 결심했다. 그래서 한밤중에 몰래 집을 뛰쳐나왔다./그 날로부터 자청비는 거리에서 사람들을 붙잡고 하늘나라의 사정과 그 곳 사람들이 살아가는 형편을 전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청비의 말을 믿지 않았다./“미친 여자가 다 있군.”/사람들은 그녀를 보면 피하면서 혀를 찼고, 어떤 때에는 들팔매질까지 했다./그러나 그녀는 쉬지 않고 사람들에게 하늘나라 이야기를 전했다./이 땅 사람들은

18) 현길언 소설집, 『자청비 자청비』, 계수나무, 2005, 5~7쪽.



여전히 서로 경쟁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자랑하고, 즐기기 위해 애쓰면서 번거롭게 살아가고 있다. 세계 곳곳에서 전쟁은 그칠 날이 없고, 사람들은 질병과 배고픔으로 고통을 받고, 자연의 재앙에 두려워하고 있다. 그래도 자청비가 전하는 하늘나라 이야기를 믿지 않고 듣지도 않았다.(191~192쪽)

작품의 말미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자청비의 수난은 예수의 고난에 비견된다. 전쟁, 갈등, 분쟁이 만연한 세상에서 하늘의 뜻을 알리기 위해 숭한 고난에도 굴하지 않고 씬 없이 복음을 전하는 예수의 모습이 자청비에 투영된 것이다.

기독교는 현실인문학을 이루는 중요한 축의 하나다.<sup>19)</sup> 특히 최근에 그는 ‘평화의 문화 연구소’를 설립하여 기독교적 성향이 짙은 『본질과 현상』(2005년 가을 창간)이라는 계간지를 발행하고 있는데, 『자청비, 자청비』는 계간지 창간 직후에 나온 작품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소설이 기독교적인 평화 메시지를 의도한 작품임은 변형된 삽화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자청비, 자청비』에서 현길언은 불교·유교 등의 다른 종교와 관련된 설화의 원래 내용을 거의 없애거나 기독교적인 것으로 바꾼다. 설화에서는 불공을 드려서 자청비를 얻는다고 했으나,<sup>20)</sup> 이 소설에서는 자청비의 어머니가 “하느님께 자식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19쪽)하였다고 한다. 하늘에 빌어 태어난 자청비는 천세동을 만나기 전부터 “저 하늘나라에는 누가 살까?”(14쪽) 하고 늘 궁금해 한다. 비단 짜는 할머니 집에서 나온 이후 비구니가 되어 돌아 다닌다는 삽화는 이 작품에 아예 나타나지 않는다. 문도령을 따라 서당에 가고자 하여 부모에게 고할 때 글을 배워야 축문(祝文)을 쓸 수 있지 않느냐는, 즉 유교적 조상봉사(祖上奉祀)를 내세워 글공부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발언도 이 작품에 없다.

물론 종교적인 면 외에도 달라진 내용들이 더러 보인다. 자청비가 탐진 출신(48쪽)이며 “아버지가 먼 제주 땅으로 귀양을 갔”(178쪽)다는 언급에서 제주도를 공간적 배경으로 삼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자청비가 오히려 여자임을 알리려고 팔씨름 시합을 벌인다는 점, 정수남이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 양어머니가 직접 천세동 손에 바늘을 찔러 자청비를 떠나보내지 않으려 한다는 점 등도 달라진 부분이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자청비, 자청비』는 기독교적인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설화를 변용한 작품임이 가장 특징적인 면모다.

## 5. 제주여성의 정체성 강조—한림화의 「자청비」

한림화는 증편소설 「여정(女丁)들」<sup>21)</sup>의 앞부분에서도 자청비설화를 소재로 취한 바 있는데, 그것은 설화 내용을 요약하며 전언하는 단순한 방식의 수용이었다. 그에 비해, 「자청비」는 자청비를 변용한 김달린이라는 잠녀(해녀)를 내세워 바닷가에서 잠녀굿판을 벌인 점에서 변용의 정도가 꽤 다르다. 자청비가 풍농을 기원하는 세경신이 되었다는 내용은 이 소설에

19) 현길언은 소년시절 제주4·3으로 인해 해안마을로 이주하면서 남원교회 주일학교에 다닌 것을 계기로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었다. 사범학교 다닐 때 세례를 받았고, 군대에서도 오음리교회에 다녔다. 그는 1985년 8월 제주를 떠났는데, 1988년부터 서울의 충신교회에 가족이 모두 출석하기 시작했고, 그 후 교회학교 고등부 교사를 거쳐 장로까지 맡게 되었다. 1990년에는 자진하여 기독교문인협회에 가입하고 기독교인들의 신앙과 문학의 문제를 나눌 기회를 얻고자 노력하면서 기독교문학상(1997)과 기독교문화대상(2000)도 받았다. 문학연구(『문학과 성경』 등)에서도 창작(『보이지 않는 얼굴』·『벌거벗은 순례자』 등)에서도 기독교에 기울어졌다. 김동윤, 「현길언 소설의 제주설화 수용 양상과 그 의미」, 『제주문학론』, 제주대학교출판부, 2008, 324~325쪽 참조.

20) 현길언은 자청비설화를 아동용의 『제주도 이야기』 속에서 「농사를 맡은 신 자청비」로 쓴 바 있는데, 거기서는 “절에 들어가 백일 불공”(35쪽)을 드렸다고 기술하고 있다.

21) ‘이야기 여성사1’이라는 부제가 붙은 이 소설은 신화속의 인물에서부터 조선후기, 구한말, 일제강점기, 해방직후의 4·3, 1980년대를 살아온 제주여성들의 강인성을 이야기하듯이 서술한 작품이다.

서 잠녀굿을 통해 풍어를 기원하는 이야기로 변모되어 나타난다.

- ① 상군 잠녀인 김달린은 잠녀굿에서 씨 뿌리는 사람으로 처음 선출되어 굿판에 나왔다.
- ② 11년 전 달린의 남편은 둘째 아이를 잉태시킨 정사를 벌인 날 밤에 당분간 떠나겠다는 말만 남긴 채 검은여를 통해 먼 바다로 사라져 버렸다.
- ③ 달린이 딸을 낳은 이듬해에 남편은 일본 대판의 피혁공장에 있다는 소식과 함께 돈도 보내왔다. 그 후 6000평 토지를 마련하며 억척스럽게 살아온 달린에게 남편은 간간이 소식을 보내다가 큰 딸이 입학한 후 연락이 끊겼다.
- ④ 달린은 연초에 주소만 갖고 남편을 찾아갔다가 남편이 일본여자와 결혼해 살면서 자신을 일본 아내에게 여동생이라고 소개하자 즉시 돌아서 나왔다.
- ⑤ 한 달여를 일본에 머물다 귀향한 달린은 이웃들에게 거짓으로 남편 자랑을 했다.
- ⑥ 용왕맛이를 끝내고 심방이 씨 뿌릴 순서라고 하자 달린은 뛰어 내달려 씨를 뿌려나갔다.
- ⑦ 남편이 떠난 검은여에는 흉년들게 기원할까 망설이다가 다시 남편을 실어올 수도 있으리라 여기면서 더 골고루 씨를 뿌리고, 일본여자에게는 남편을 데려 살다가 싫어지면 자신에게 보내주기를 바랐다. 씨부게기는 제단에 바쳤다.

달린은 자청비처럼 아름답고 강인한 여성이다. 잠녀굿에서 바다에 씨를 뿌릴 사람은 상군 대열에 끼인 잠녀여야 하고, 그 해에 일가친척의 상을 당하지 않은 사람으로 고르는데, 김달린은 그 해의 ‘서펜 바당’(서쪽 바다)에 씨 뿌릴 선수로 만장일치로 선출되었다. 달린은 “서른다섯 살 먹은 두 아이의 어머니라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게” 여린 모습이며 “그림에도 불구하고 동작마을에서 제일 빨리 달리는 여자, 제일 악바른 상군 잠녀”(236쪽)로 묘사된다.

달린의 남편은 문도령에게 빚낼 수 있다. 그녀의 남편은 문도령처럼 신분이 고귀하진 못하지만 비범한 면이 있는 남자였다. 그는 장사이면서 일도 잘하는 인물이다. “오랫동안 동네 어귀에 버려졌었던 ‘똥돌’을 번쩍 들어올려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등 “스물 안팎에 장사 소리를 들을 정도로 힘이 세었”는데 “증조부가 겨드랑이에 날개가 달린 장수였다고 전해오는 집안”(239쪽) 출신임은 비범한 면모라고 볼 수 있다.

설화에서 문도령과 자청비의 결합에 우여곡절이 많았던 것과는 달리, 달린과 남편은 같은 마을의 위 아랫집에서 함께 자라다가 달린이 스물한 살이 되자 남편이 일른 제 색시로 만들어 버리면서 비교적 쉽게 결합이 이루어진다. 특별한 시련이나 우여곡절이 없이 결혼이 성사되도록 한 것은 사랑 자체보다는 제주 여성의 강인한 삶을 달린을 통해 보여주려는 데 주안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이 작품은 자청비를 신적 존재로가 아닌, 강인한 제주 여성으로 보편화하여 부각시키기 위한 변용으로 판단된다. “십일 년을 남편 없이도 잘 살았다”(245쪽), “예로부터 제주 여인은 남성 못잖게 자기알가림이 밝았으니”(246쪽), “제주 여인으로서의 기백”(248쪽)이란 작품 속의 언급에서 제주 여성의 강인함과 현명함을 부각시키고자 한 의도를 엿볼 수 있다.

문도령이 자청비만이 아니라 서천꽃밭 막내딸과도 살았던 것처럼 달린의 남편은 아내와 자식을 남겨 둔 채 일본으로 밀항하여 아주 간간이 소식을 전해온다. 11년이 지나 일본으로 찾아간 그녀는 남편이 이미 일본여자와 결혼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다.

그는 뱃짐 좋게 그의 지금의 처지를 달변으로 설명했다. 등록이 없다보니 늘 경찰에 쫓기는 몸이 되었다. 할 수 없이 다니던 공장의 사장 소개로 일본 부잣집의 데릴사위로 들었노라고, 이해해주리라 믿으며 먼길을 왔으니 제발 자기 누이 행세를 해준다면 집으로 돌아갈 때는 사례를 섬섬잡게 하겠노라고 쉬임없이 지껄었다./달린은 소리소리 질러대었다. 시끄럽다. 이놈아, 나도 돈 있다. 네놈이

떠나버린 후로 전답을 육천 평씩이나 마련한 나다. 돈이라고, 돈이라고— 한 마디도 소리가 되어주지 않는 고향을 안으로만 질러대다가 돌아서서 방을 나왔다. 그가 따라나오며 그녀를 붙잡으려 했다. (...) 그가 그녀의 꼬릴 한사코 잡아도 뒤도 돌아봄이 없이 곧장 한 길로 걸었다.(248~249쪽)

비록 입 밖으로 내뱉은 것은 아니지만, 달린은 남자에게 매달리지 않고 자존을 세우고 있다. 고향을 안으로만 지른 것은 관용의 자세에서 기인한 것이다. 작품 말미에서는 관용을 배풀 줄 아는 제주 여성의 모습이 좀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처녀 심방이 용왕맛이를 끝내고, 자, 씨뿌릴 차례우다 하고 소릴 지르며 연물을 잦은 가락으로 연주하자 달린은 산노루처럼, 청충마처럼 뛰어 내달려 씨를 뿌려나갔다. 동편 바당의 끝 검은 여까지 달려나갔다./내 서방과 생이별하게 한 미운 검은 여. 여기랑 흥년들게 해볼카부다./순간 악심이 달린의 오금을 늦추었다. 그러나 되생각해보면 바다 탕이 아닌 성싶었다. 그 바다 어느 끝에서 회심이 솟구쳐 아이 아버지가 다시 돌아올지도 모른다. 그를 실어갔듯이 실어오기도 할 것이다. 달린은 다리에 힘을 주어 검은 여를 펄펄 날면서 더 골고루 씨를 뿌렸다./이 씨는 서방 우른 씨앗, 이 씨는 시앗 우른 씨앗이여. 우리 서방 막걸 말앙 왜놈의 계집아이야. 천년만년 잘 데령 살당 싫으건 나헌티로 보내어도라./달린은 씨를 다 뿌리고 달려와 제단 앞에 씨부게기를 바쳤다.(250쪽)

작가는 달린이 처자식을 버리고서 일본여인과 살고 있는 남편이 박한 대접 받지 않길 기원하고, 일본여인에게는 남편이 싫어지면 보내달라고 함으로써 남편의 허물을 덮어주려는 태도를 드러낸다. 이러한 달린의 태도를 통해 작가는 대범하고 포용력이 있는 제주 여성의 모습을 투영시키고 있다.

한편, 이 소설에서의 자청비는 바다에 해산물의 씨를 뿌려준다는 영등할망의 요소와 결합되어 나타난다고도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세경본풀이」는 큰굿 속에서 풍요 기원의 제차에서 치러지고, 풍농을 위한 ‘맹감’(새해를 맞아 1년 동안의 행운을 비는 굿)이나 우마 증식을 위한 마불림제 등과 같은 당굿에서 불리지만, 풍어를 기원하는 요왕맛이·영등굿 등에서도 불린다<sup>22)</sup>는 점을 고려하면 영등할망의 성격이 반영되는 점은 자연스럽다고 본다.

결국 이 작품에서 작가는 제주 여성의 정체성을 자청비를 변용한 해녀 김달린을 통해 드러내려 했다. “제주 여성들의 능동적이고도 자발적인 삶을 보곤 천하를 얻은 것만큼이나 포만한 기쁨을 간직했다. 해녀라고 부르는 잠수세계를 보면서, 지금 우리들 여성계가 혼신을 다해 이루어내려는 여성사회가 여기 있는데, 하고 자부하게 되고 그래서 이 긍정적인 사회를 잘 알리고 싶어서 나는 거기에 적절한 그릇을 여러 가지로 마련해보기도 했다.”<sup>23)</sup>는 한림화의 언급에서도 그러한 점은 충분히 확인된다. 다만 그 내용이나 갈등구조가 단순하고 평이하게 처리됨으로써 작품 자체의 흡인력이 다소 약하다. 자청비설화를 단편적이고 평면적으로 수용하고 마는 한계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 6. 과감한 변용의 득실—이명인의 『집으로 가는 길』

이명인의 장편소설 『집으로 가는 길』은 “당찬 농사의 여신 자청비와, 이 땅에서 후(後)보름을 살고 서천꽃밭 사라대왕 막내딸과 선(先)보름을 살던 문국성 문도령, 이승과 저승을 오가며 저승길 길라잡이를 하던 차사 강림, 서흥동 당가름에 눌러살던 고상국, 그 외에 서귀포 본향당(本鄕堂) 주인인 바람웃도, 거구인 설문대할망 등”이 작가가 만든 “인간의 웃을 입고

22) 좌혜경, 앞의 글, 327쪽.

23) 한림화, 「작가의 말」, 『꽃 한 송이 숨겨놓고』, 한길사, 1993, 298~299쪽.

세상에 나들이”<sup>24)</sup> 나온 작품이다. 말하자면 자청비설화만이 아니라 설문대할망설화, 차사본풀이, 서귀포본향당신화 등 여러 제주설화가 섞이어 변용된 소설이다. 이 장편은 모두 10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장이 시작될 때마다 제주민요가 인용되는 것이 특징이다.

① 큰아들 강림이 해녀그림을 갖고 오자 문홍로는 놀랐다. 이후 아내 사라가 수영장 갔다가 응급실에 실려간 데 이어, 둘째아들 유림이 바다에서 죽다가 살아났는데, 마침 주방장이 익사했다.

② 30여 년 전 홍로와 관계 맺은 청비는 홀로 남아 상국의 집에서 채운을 낳고서 물질 하다가 죽었다. 훗날 채운이 해녀를 그렸는데 바로 청비의 모습이었다.

③ 홍로의 큰아들 강림은 제주도의 채운 집에서 목계 되었다. 채운은 무병에 걸려 이혼한 후 귀향한 여자였다.

④ 제주에 간 강림이 돌아오지 않자 홍로의 근심은 깊어졌다. 홍로 아버지 제민의 채삿날 강림이 돌아오고 제사 지내는데 해녀그림 액자가 떨어져 깨진 유리에 홍로가 손을 다쳤다. 어머니 설씨는 그날 밤 무서운 꿈을 꾸었다.

⑤ 채운과 강림이 급속도로 가까워지더니 강림이 청혼한 후 성 관계를 가졌다. 카페를 운영하던 채운이 화방을 개업했는데, 상국은 계속 꿈에 시달리며 불안해한다.

⑥ 서울 간 강림이 소식이 없는 가운데 초조해진 채운에게 전 남편 수영이 아들 우진과 함께 찾아와서 재결합하자고 하나 거절당한다.

⑦ 강림이 귀경해 꼭 결혼하겠다고 하니 홍로는 허락하려 하지만 사라의 연상의 이혼녀라 절대 안 된다고 했다.

⑧ 강림이 제주에 돌아와 재회한 후, 채운은 서울 가서 면발치에서 우진을 보고 왔다. 우진 할머니가 죽자 수영이 출장 가는 동안 우진이 맡겨지고, 채운이 몸의 변화를 느낀다.

⑨ 설씨의 와병 중에 홍로는 제주에서 제민의 시신을 묻은 포제단을 찾아가나 그곳이 굴밭으로 변한 걸 보고 야반도주하던 일을 떠올린다. 그는 채운이 애까지 있음을 알고 강림에게 포기를 종용하다가 귀가했다. 설씨가 죽어 유골 뿌리려고 다시 제주를 찾은 홍로는 채운의 친모 얘기를 들었다.

⑩ 홍로는 상국을 만나 채운이 청비의 딸임을 확인하고, 청비 묘소에 함께 참배했다. 강림이 파리로 떠난 가운데 홍로가 청비의 묘비를 세운다. 남극노인성 보러 간다는 홍로를 따라나선 채운은 뱃속에서 자라는 아기의 존재를 생각했다.

위의 개요에서 보면 이 작품에서 자청비설화는 본래의 모습을 쉽게 포착하지 못할 정도로 큰 폭에서 변용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주요 인물과 주요 모티프에서는 자청비설화가 근간을 이루는 것이 분명하다. 자청비설화의 문도령과 자청비는 이 작품에서 문홍로와 청비로 등장했다. 홍로의 부인 사라의 서천꽃밭 막내딸을 수용한 인물이다.

설화의 자청비는 적극적이고 당찬 여성이지만, 이 소설 속의 청비에게는 그런 면이 비교적 덜 부각된다. “물질도 잘해서 열 길 물 속도 드나드는 당찬 처녀”(37쪽)라는 점에서 자청비의 강인성이 투영되어 있기는 하나, 사랑하는 남자와 확실히 결합하기 위한 행위의 적극성은 떨어진다. 즉 청비는 구덕혼사를 한 홍로와 유채꽃밭에서 육체관계를 맺고 며칠간의 꿈같은 날을 보내지만 홍로의 야반도주로 그 사랑을 이루지 못한 채로 채운을 낳고서 죽고 만다. 훗날 홍로가 청비의 묘비를 세우는 것으로 저승에서나마 사랑을 확인하였다고 볼 수 있지만, 설화와는 달리 비극적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문홍로도 설화 속의 문도령과는 달리 비극적 인물로 변형되어 나타난다. 사랑하는 청비와 혼인을 약속하지만 아버지의 죽음과 빛으로 인해 야반도주로 제주도를 떠나 30여 년 동안 연락을 끊은 채 지내다가, 결국 채운이 자신과 청비 사이의 딸임을 확인함으로써 채운과 강림의 사랑을

24) 이명인, 「작가의 말」, 『집으로 가는 길』, 문이당, 2000.

과국에 이르게 하는 인물이다. 홍로에게서 천신(天神)의 이미지는 찾을 수 없다.

또한 설화 속의 문도령은 서천꽃밭 막내딸과의 이중살림을 거리낌 없이 하는 인물인 데 반해, 소설의 문홍로는 그렇지 않다. 그는 청비와 헤어진 후 사라와 결혼하여 두 아들을 낳고 살면서도 청비와의 이루지 못한 아픈 사랑을 가슴에 간직하고 살아간다.

이 소설에서 채운이 그린 해너그림은 설화에서 자청비가 서천꽃밭 막내딸 집에 살면서 돌아올 줄 모르는 문도령에게 보낸 편지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그 그림이 홍로에게 30여 년 전의 제주를 만나게 한다.

강림이 펼친 그림을 보는 순간 홍로의 눈이 커다랗게 떠졌다. 그리고는 얼굴로 확 솟구치는 열기에 당황해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신문지 반쪽보다 조금 더 클 성실은 캔버스에 바다가 섬뜩할 정도로 푸르렀고, 그 바다로 들어가려는지 혹은 나오려는지 상반신의 옆모습만 드러낸 해너가 먼데를 바라보고 있었다.(9쪽)

해너 그림이 홍로 집에 걸린 후부터 집안에 변고가 생기기 시작한다. 사라가 수영장에 갔다가 응급실에 실려가는 일이 생기는가 하면, 유림이 바다에 빠져죽을 뻔한 일도 발생한다. 그림으로 인해 강림과 채운이 사랑을 꽃피워가고 궁극적으로 홍로가 제주로 귀향하여 청비(묘소)를 찾기에 이른 것이다. “채운 씨 그림이 날 이 제주로 부른 거예요.”(66쪽)라는 것은 아들 강림의 말이긴 하지만, 홍로의 말로도 들린다. “청비가 시킨 일”(243, 244쪽)이라는 상국의 발언에서도 해너그림이 자청비의 편지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그것이 청비와의 사랑을 나누던 ‘집으로 가는 길’을 찾는 계기가 된 것이다.

아울러 홍로가 청비에게 주었던 목걸이는 설화의 문도령이 남긴 열레빗의 반쪽과 같은 증표였다. “침당굴에다 예쁜 전복껍데기와 그 양옆에 조개껍데기 세 개씩을 꿰어 만든 그 목걸이”(57쪽)는 빛 반쪽 혹은 복숭아씨의 기능을 한다.

유채꽃 첫날밤을 보냈던 다음날, 홍로는 청비에게 무언가를 해주고 싶어서 미친 듯이 들로 바닷가로竄다녔었다. 해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은데, 해줄 게 없는 환장하게 서러운 가난. 홍로는 침당굴 껍질을 얇게 벗겨서 비벼서 꼬았다. 그런 다음 청비가 간간이 가져다주었던 작은 전복껍데기를 가운데 끼우고 양쪽으로 보말껍데기를 서너 개 끼워서 목걸이를 만들었다. 지천으로 널린 침당굴이었고 조개껍데기여서 초라했지만, 청비는 기쁘게 받았다.(224쪽)

침당굴로 엮은 조개목걸이는 청비가 죽은 후 상국이 보관하고 있다가 채운에게 전해졌다. 30여년 후 홍로는 채운의 목에 걸린 목걸이를 보게 되는데 그것이 결국 그녀가 청비와의 사이에 낳은 딸임을 확인하는 결정적인 단서로 작용했다.

사라와 서천꽃밭의 막내딸의 유사성은 이미 사랑하는 여자가 있는 홍로와 결혼했다는 점만이 아니라, 그 집안 환경에서도 알 수 있다. 사라의 친정아버지는 “서울 장안에서 몇 대째 이어오던 갑부”였다. 비록 아버지가 정치에 빠져서 있는 가산 다 날리고 화병이 나서 부부가 연이어 죽었지만, 사라는 모진 고난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살림이 퍼지면서 뽀시락뽀시락 귀티를 내며 살”았다. 홍로가 그런 사라를 지켜보면서 “사람이란 근본은 어찌지 못하는가 보다”(25쪽)는 생각한다는 것을 보면 좋은 집안의 딸이라는 설정을 설화에서 따왔음이 확인된다.

문강림은 이승에서 죽은 자의 영혼을 잡아가는 차사본풀이의 강림차사<sup>25)</sup>를 변용한 인물이다.

25) 신화에서 강림은 18명의 부인을 거느린 똑똑하고 영리한 관원이었다. 염라대왕을 잡아오라는 사또의 명을 받은 그는 막막한 생각에 칩들을 찾아다니며 도움을 요청하지만 모두에게 거절당한다. 하는 수 없이 소원하게

강림은 제주도에 갔다가 해녀 그림을 접한 것을 계기로 채운과 만남으로써 아버지 흥로에게 제주를 다시 찾게 한다. 그는 결국 이승의 흥로와 저승의 청비를 이어주는 역할을 한 셈이다.

흥로의 어머니 설씨는 설문대할망에서 따온 인물이다. 설문대할망은 옥황상제의 큰딸로서 제주도를 만든 거대한 여신이다. 소설에서 설씨는 남편이 죽자 머뭇거리지 않고 외아들인 흥로로 하여금 남편을 암매장하게 하고 제주를 떠나 아들로 하여금 자수성가하도록 이끌면서 자신은 “팔순이 넘도록 혼자 끼니 해먹으며 노인정에서 인형눈을 붙”(15쪽)이며 살아가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는데, 이는 설문대할망의 창조 정신을 부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서귀포 본향당에 좌정한 신인 고산국과 바라못또(바람웃도)<sup>26)</sup>는 상국과 풍도로 나온다. 소설 속 상국의 운명은 서귀포 본향당 신화에서 그대로 빌려왔다.<sup>27)</sup> 신화 속의 고산국이 차마 바라못또와 동생을 죽이지 못하고 경계를 달리하여 살았던 것처럼, 소설 속의 고산국은 평생 남편의 옷을 장롱 깊숙이 간직해 두고 사는 여인으로 나온다. 상국은 자청비설화에서의 비단 짜는 양어머니로도 생각할 수도 있다. 자청비가 집에서 쫓겨나서 노파의 집에 유숙한 것을 계기로 수양딸이 되었듯이, 혼자 남아 임신한 청비도 홀몸의 상국을 찾아간 데서 유사성이 있다.

『집으로 가는 길』에서 자청비설화를 비롯한 여러 설화를 뒤섞어 과감한 변용을 시도한 점은 주목할 사항이다. 하지만 제주설화 본래의 맛깔을 희석시킨 부분은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예컨대 자청비 특유의 강인하고 당찬 성격이나 이미지를 크게 약화시켜버린 점은 수긍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 7. 자청비설화 수용의 과제와 방향

이상에서 살핀 바를 종합해보면, 자청비설화 수용에 나타난 사항들을 통해 그 과제와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여기서 제기한 과제와 방향은 비단 자청비설화의 수용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님은 물론이다. 아울러 이 작업은 작가들의 창작 방향만이 아니라 문화콘텐츠 분야의 활용에도 시사하는 면이 있을 것이다.

먼저, 원텍스트인 설화에 대한 좀더 정확하고 심층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설화의 각편들을 충분히 검토하여 그 의미를 온전히 뽑아내지 못함으로써 설화의 일면만 단편적이고 평면적으로 수용하는 데서 그다지 나아가지 못한 경우들이 있기 때문이다. ‘차이가 있는 반복’<sup>28)</sup>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설화에 대한 아주 깊이 있고 확실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자청비설화를 수용한 소설의 경우 아직까지 설화의 참맛을 역동적으로 독자에게 전달하는 작품을 접하기 어려운 것은 작가들의 원텍스트에 대한 충분한 탐색이 모자란 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

나아가 원텍스트에 대한 구체적·심층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의미의 패러디를 시

---

지내던 큰부인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고 큰부인의 지혜로 염라대왕을 데려오게 된다. 이 일로 염라대왕은 똑똑한 강림을 저승차사로 삼게 되었다.

26) 신화에서 한라산 설매국의 남신 바라못또는 아름다운 고산국과 결혼했다. 그런데 3일 후에 보니 처제가 더 예뻐 고민하다가 급기야 처제와 사랑에 빠져 함께 한라산으로 도망친다. 언니 고산국은 이 사실을 알고 뒤를 쫓지만 차마 둘을 죽이지 못한 채 서로 물 가르고 땅을 갈라 각기 다른 곳에 좌정해 살았다.

27) “상국은 혼자 살고 있었다. 남편 풍도가 동생과 눈이 맞아 한라산으로 숨어버린 지 벌써 여러 해였다. 애초에 남편은 상국에게 관심이 없었다. 그러나 역혼사는 안될 말이라는 강력한 아버지 주장 때문에 풍도는 상국과 혼인을 치렀지만 늘 마음은 동생에게 가 있었다. 그러더니 이듬해 동생과 홀연히 사라져버렸다. 어떤 사람은 한라산 깊숙이 있는 표고 초막에서 지낸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바로 옆 동네 동흥동에서 신접살림을 꾸렸다고도 했지만 상국은 잊기로 했다. 그 뒤로 강가름 후미진 곳에 막집 하나 지어서 이 년째 혼자 살고 있는 중이다.”(43쪽)

28) 린다 허친 『패러디 이론』, 김상구·윤여복 옮김, 문예출판사, 1992, 36쪽

도할 필요가 있다. 결합된 모티프(빼내어 버릴 수 없는 모티프)를 잔다듬고 자유로운 모티프(작가의 비평적 거리에 의한 차이)<sup>29)</sup>를 적극 활용·변용할 때 성공적인 의미의 패러디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그러나 원텍스트인 설화를 훌쩍 뛰어넘는 성취를 보인 소설을 찾기가 쉽지 않다.

위에서 살핀 네 작품에서 보면, 그 변용이 거의 없는 이석범의 「자청비」를 제외하고는, 농민의 이미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 한림화의 「자청비」와 이명인의 『집으로 가는 길』에서는 오히려 해신의 이미지에 더 가깝게 형상화하였다. 이는 제주도가 바다로 둘러싸인 섬이라는 점에 주목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제주를 섬으로 인식한 흔적을 원텍스트인 자청비설화에는 찾을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제주도에 농경과 목축의 역사적 전통은 매우 오래되었고 지금도 절실한 현실적 삶의 문제다. 제주문화에 나타난 농경문화와 목축문화의 면모를 치밀하게 탐색함으로써 세경신으로서의 자청비의 모습을 온전히 보여주어야 한다.

자청비야말로 지금처럼 ‘현대적인 여성’<sup>30)</sup>이라는 점도 좀더 밀도 있게 포착해야 마땅하다. 남성중심적이고 가부장적인 오늘날의 사회구조에서 여성해방과 인간해방의 문제에 대해 자청비를 통해 진지하게 탐색하는 것이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본다. “자청비는 평등과 해방을 갈구하는 여성이 아니라 이미 남성을 지배하는 여성의 이미지를 보여주기도 하고 오히려 남성들을 성적 노리개로 조롱하는 역차별의 통쾌함을 보여주기도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녀는 다양한 가족과 부부와 심지어는 동성애적 관계를 포함한 인간관계의 형태를 보여주는 점에서, 또 개인적이라 할 수밖에 없는 다양한 감정과 본능의 영역을,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임을 잃지 않으면서 보여주는 점에서 선구적이기도 하다.”<sup>31)</sup>는 논의도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민중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것도 아쉬운 부분이다. 민중연회로서의 국관에서 비롯된 설화인 만큼, 자청비설화는 신의 내력담이면서도 짙은 민중적 정서를 담아내고 있는 이야기다. 물론 이 논문에서 검토한 소설들에서도 민중성이 감안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다지 강력한 정서로 작용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민중적인 정서를 좀더 생동감 있게 강화하는 것이 작가들에게 부여되는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제주어에 대한 깊이 있는 탐색, 제주민중의 세부적인 생활사에 대한 고찰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

아울러 현실의 구체적인 삶의 문제와 주도면밀하게 연계하여 형상화하는 작업이 절실하다. “굿은 환상이 아니고 현실”<sup>32)</sup>이라는 말마따나, 설화도 환상이 아니라 직면한 현실의 문제임을 유념해야 한다. 여전히 신화·전설·민담으로만 머물게 해서 곤란하다. 작가들의 치열한 현실인식이 제주설화의 수용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 8. 맺음말

이 논문에서는, 제주설화를 현대소설에서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자청비설화가 소설에 구조로서 참여한 4편의 작품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지금까지 논의한 바를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9) 이미란, 『한국 현대소설과 패러디』, 국학자료원, 1999, 35~36쪽.

30) 김정숙, 『자청비·가문장아기·백주또—제주섬, 신화 그리고 여성』, 각, 2002.

31) 위의 책, 213쪽.

32) 문부병, 「제주무가의 현대문학적 변용」, 『제주문화』 22, 제주문인협회, 1992, 158쪽.

첫째, 자청비설화는 진취적이고 강인함을 지닌 여성 자청비가 여성성·남성성을 뛰어넘으며 영웅적 면모로 거듭난다는 설화로, 주인공 자청비는 제주여성의 표상으로 인식된다. 이런 점은 이 설화가 문학작품에 자주 수용되는 주된 이유가 된다.

둘째, 이석범의 「자청비」(2005)는 구조·모티프 등에서 자청비설화와 차이가 거의 없이 원텍스트를 반복함으로써 소설로서의 의미가 약화되었다. 이는 설화 각편들을 검토해 연계성과 짜임새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다시 쓰기를 함으로써 제주신화의 대중화에 기여하려는 작가의 의도에서 기인한다.

셋째, 소년소설인 현길언의 『자청비, 자청비』(2005)는 전체적인 구조에서는 설화와 차이가 없으나 주제의식이 판이하고 일부 삽화들도 주제에 맞게 변형된바, 이는 작가의 종교적 의도와 밀접히 관련된다. 즉, 농경신인 자청비를 기독교적 의미의 ‘평화의 신’으로 변용시킨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넷째, 한림화의 「자청비」(1993)에서는 설화의 자청비가 해녀로 변용되었는데, 남편의 탄살림에도 굴하지 않고 억척스럽게 살아가는 해녀를 통해 제주여성의 강인성과 포용력을 강조한 소설이다. 하지만 그 내용이나 갈등구조 등에서 볼 때에 단편적·평면적으로 설화를 수용한 점이 아쉬운 부분이다.

다섯째, 이명인의 장편 『집으로 가는 길』(2000)은 자청비설화만이 아니라 여러 제주설화를 뒤섞어 활용하면서 과감한 변용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소설이다. 그러나 그것이 주인공의 이미지나 성격 등에서 설화가 본래 지닌 맛깔을 희석시켜버린 점은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고 본다.

여섯째, 앞으로 자청비설화를 포함한 제주설화를 소설에 수용할 경우에는, 원텍스트에 대한 정확하고 심층적인 이해를 토대로 자유로운 모티프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아울러 그것이 본래부터 지닌 민중성을 감안하면서 현실의 구체적인 삶의 문제와 용의주도하게 연계하려는 자세를 작가들이 견지할 필요가 있다.

**\*핵심어:** 제주설화, 자청비설화, 설화의 소설화, 패러디, 구조, 모티프



## <참고문헌>

- 이명인, 『집으로 가는 길』, 문이당, 2000.
- 이석범, 「자청비」, 『할로영산』, 황금알, 2005.
- 한림화, 「자청비」, 『꽃 한송이 숨겨놓고』, 한길사, 1993.
- 현길언, 『자청비, 자청비』, 계수나무, 2005.
- 곽근, 「처용설화의 현대소설적 변용 연구」, 『국어국문학』 125, 국어국문학회, 1999, 355~356쪽.
- 김동윤, 「현길언 소설의 제주설화 수용 양상과 그 의미」, 『제주문학론』, 제주대학교출판부, 2008, 300~327쪽.
- 김영화, 「설화의 현대화」, 『변방인의 세계』, 제주대학교출판부, 1998, 47~57쪽
- 김정숙, 『자청비·가문장아기·백주또—제주섬, 신화 그리고 여성』, 각, 2002.
- 김진하, 「신화로 다시 태어난 제주 서사무가—이석범 소설집 『할로영산』 서평」, 『제주작가』 제15호, 2005, 351~358쪽.
- 린다 허천 『패러디 이론』, 김상구·윤여복 옮김, 문예출판사, 1992.
- 문무병, 「제주무가의 현대문학적 변용」, 『제주문학』22, 제주문인협회, 1992, 143~161쪽.
- 문성숙, 「제주설화의 현대문학적 변용」, 『제주문학』22, 제주문인협회, 1992, 130~131쪽.
- 박경신, 「제주도 무속신화의 몇 가지 특징—「세경본풀이」를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96, 국어국문학회, 1986, 283~303쪽.
- 이미란, 『한국 현대소설과 패러디』, 국학자료원, 1999.
- 좌혜경, 「즈청비, 문화적 여성영웅에 대한 이미지—여성상과 성격을 중심으로」, 『한국·제주·오키나와 민요와 민속론』, 푸른사상, 2000, 327~351쪽.
- 진성기, 『제주도 무가 본풀이 사전』, 민속원, 1991.
- 한창훈, 「제주도 무가에 형상화된 여성(신)의 성격」, 『시가와 시가교육의 탐구』, 월인, 2000, 307~332쪽.
- 현길언, 「농사를 맡은 신 자청비」, 『제주도 이야기』1, 창비, 2005.
- 현용준, 『제주도 신화』, 서문당, 1978.
- 현용준, 『제주도 무속 본풀이 사전』, 신구문화사, 1980.
- 현용준, 『제주도 신화의 수수께끼』, 집문당, 2005.

[Abstracts]

## A Study on the Aspect of Reception of Jeju Narratives in Modern Novels

—with focus on reception of a narrative about Jachungbi—

Kim Dong-yun

In this paper, how modern novels received Jeju narratives is explored with focus on four literary works which include the framework of a narrative about Jachungbi, a native goddess of agriculture in Jeju. In *Jachungbi* by Lee Seok-bum, original texts from the Jachungbi narrative are repeated in terms of structure and motif. This is largely because of the intention of making myths of Jeju popular by rewriting narratives in a way of reinforcing connection and structure. *Jachungbi*, *Jachungbi* by Hyun Gil-un only slightly differs from the narrative in terms of the overall structure, however its motif-consciousness is radically different. This is because Jachungbi, a goddess of agriculture was modified to a "goddess of peace." *Jachungbi* written by Han Lim-wa emphasizes on the strength of women in Jeju by depicting women divers who lead an unyielding life despite her husband who establishes a separate home, however its fragmentary and planar structure leaves something to be desired. *The Way Home* by Lee Myung-in draws attention in that the writer tried to give it a radical change by utilizing a blend of Jeju narratives, but it can be a problem because the unique flavor of Jeju narratives is diluted. In the future, when a writer receives Jeju narratives in his novels, based on the accurate and in-depth understanding of the original text, he is advised to freely utilize its motif and scrupulously connect its popular orientation to physical problems in real life.

\*key words: Jeju narrative, narrative about Jachungbi, novelization of narratives, parody, structure, motif